

### ‘조계종 결연 청소년 겨울캠프’ 현장

만해 스님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생명사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백담사 만해마을’이 올유년(乙酉年) 새해 벽두부터 ‘나눔’과 ‘사랑’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찰과 복지관 차원뿐만 아니라 스님과 1대 1로 결연을 맺고 있는 전국의 불우 청소년 60여명이 나눔과 불교문화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법정)이 1월 5일부터 2박 3일간 마련한 ‘조계종 결연 청소년 겨울캠프’는 살을 에고 강을 얼리는 매서운 겨울 추위를 물리칠 만큼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조계종은 결연사업을 통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찰과 스님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백담사 만해마을로 떠나는 아이들을 배웅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정 스님(오른쪽) 등 총무원 소임 스님들.



‘나눔’과 ‘함께함’의 소중함을 배운 아이들이 겨울캠프 둘째날 새벽 낙산사 의상대를 찾아 기념촬영을 했다. 만해마을 주지 삼조 스님은 “밝은 표정만큼 씩씩하게 자라나 사회의 큰 그릇이 돼라”고 당부했다.

## 동장군 물렸거라 ‘결연의 情’ 나가신다

#### # 법당 스님 아이들이 모자·장갑 선물

“행!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도 다 같이 왔네!”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 5일 아침, 전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조계사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지난 7월 수석사에 함께 갔던 기법(19·대동정보산업고2)·지현(16·중앙중2) 남매와 준우(11·청운초3)·수연(7·준일4) 남매는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충남 홍성에서 올라온 화정(14·용호초6)이도 함께 인사를 나누며 버스에 올랐다.  
곧이어 법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총무기관의 스님들이 아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우정국로에 나왔다. 버스에 오른 총무원장 법정 스님은 “여러분들을 수석사에서 만난지 6개월이나 지나 많이 보고 싶었다”면서 “썰매도 타고 바다도 보면서 즐겁고 신나게 놀다가 오라”며 함께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한다. 스님은 대신 아이들에게 모자와 장갑을 선물했다.

#### # “시간 없어요! 빨리 눈썰매 타러가요”

서울에서 4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백담사 만해마을’. 계곡 사이로 불어오는 서풍이 아이들을 움츠리게 한다. 만해마을 주지 삼조 스님은 “매우 추운 날이지만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좋은 우정을 만들

고 불교문화체험도 잘하라”며 아이들을 환영했다.

스님의 인사에 이어 만해학술원장 김재홍(경희대 국문과) 교수가 만해 스님의 사상과 생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자와 장갑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눈썰매장에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연이 끝날 때쯤 재미없다는 표정이던 하원(14·신자초6)이의 한마디가 들려왔다.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강연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만해마을 옆에 위치한 한계천의 ‘만해아이스파크’로 자리를 옮겼다. 눈썰매장은 가만히 서있으면 그대로 얼어버릴 것같이 추웠지만 아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눈썰매를 처음 타보는 인혜(11·신내초3)는 빨갛게 달아오른 볼이 무척하게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린다. “너무 재밌다”는 인혜는 함께 온 동생 재연(7)이의 썰매를 밀어주며 추위를 물리쳤다.

#### # “차맛이 우러나듯 진지함이 배어났다

저녁을 먹으며 몸을 녹인 아이들이 이번에는 학습관에 둘러 앉았다. “차를 정성껏 우려내면서 몸과 마음도 맑게 하는 것이 바로 다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해학술원에서 다도를 가르치고 있는 김광자(인제대학교 교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방법과 차를 대접하는 방법을 배운다.

“뜨거운 물로 잔들을 우선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에 따라 아이들은 잔을 비우고 각자 직접 우려낸 차를 마시면서 다도(茶道)를 배운다. 아이들의 눈에서는 눈썰매를 탈 때와는 다른 진지함이 배어났다. 이랑(14·동자초6)이는 “경주 골굴사에서는 차를 만드는 과정만 봤는데, 여기서는 내가 만든 차를 직접 먹으니 더 재미있다”고 소감을 말한다.

#### # “왜 부처님이 세분이죠?” 모든것이 궁금하다

첫째날 늦게까지 진행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둘째날 새벽 6시에 낙산사를 찾았다. 그러나 날씨가 흐려 해를 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낙산사를 참배했다.

경내를 둘러보면서 아이들은 불교를 보고 느낀다. 아이들은 “왜 여기에는 옛날 집들만 있어요?”, “법당에는 왜 부처님이 세분이나 있나요?”, “절에는 왜 이렇게 큰 탑이 있나요?”라며 잇따라 질문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곧이어 “원통보전(圓通寶殿)으로 가세요”라는 인솔자의 말에 지친 표정의 태현(14·동자초6)이가 “거기서 밥 먹나요?”라고 말하자 좌중은 웃음바다로 변했다. 아이들은 ‘사찰식 부페’로 마련된 아침 ‘공양’을 하며 허기를 채웠다.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결연캠프에 참가한 이영현(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씨는 “사찰체험 프로

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불교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한다. 보라(14·우신초6)도 “절에 와서 여러 유적들을 보면서 불교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 ‘나눔’의 소중함 배운 아이들 마음 따뜻하길...

아이들은 이후에도 글짓기와 촛불기원시간을 통해 올해 계획한 자신의 포부를 친구들에게 알렸다. 또 2박 3일간 일어났던 일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저기 나 나온다”며 즐거워했다.

동생 대용이와 함께 온 지용(17·번동중3)이는 “막내 동생 미정이는 몸이 아파 함께 오지 못했다”며 “미정에게는 캠프가 별로였다”고 말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정이가 너무 부러워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정 스님과 결연을 맺고 있는 예술(13·서울 효제초5)이는 “스님들이 안 계셔서 너무 허전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예술이는 “집에 돌아 가면 법당 스님께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고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과 들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까지 열게 한 겨울 바람이 만해마을을 찾은 아이들 앞에서는 주춧돌이 됐다. ‘나눔’과 ‘함께함’의 소중함을 배운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다.

글=유철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자! 달려라!’ 신나게 썰매를 타고 있는 아이들.



수수 우린 차를 마시는 아이들의 표정이 환하다.



이른 새벽 낙산사에서 일출을 기다리는 아이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일	전용버스	소림사, 탐림, 백마사 순례
4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오와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약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외불사, 담계사, 용외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현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불포함

일자	교통	일정
1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